

# 정읍 특산물 ‘지황’ 건강식품 만든다

건국유업&햄과 업무협약  
공급 기반 구축·식품 개발 등  
약용작물 산업 전반 협력키로

정읍의 특산물 ‘지황’이 현대 식품과학과 만나 산업화와 시장 확대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정읍시는 지난 6일 이학수 시장과 건국유업&햄 박경철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용작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이어 정읍지황과 작약 등 약용작물의 산업적 가치 향상과 구체적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협약서에는 ▲정읍지황·작약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개발 ▲제품 홍보·판매 촉진과 국내외 판로 확대 등 약용작물 산업 전반에 대한 협력사항이 담겼다.

정읍은 비옥한 토양과 기후 조건으로 지황 재배에 최적지로 꼽히는 곳이다. 정읍지황은 예로부터 우수한 품질과 효능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생지황을 찌서 말린 숙지황은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혈액순환 촉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면서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시는 협약을 통해 전통 약용작물의 품질과 활용 범위를 높이고 과학적 연구 기반의 가공·제품화로 산업 고도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건국유업&햄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시장 판로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황은 정읍을 대표하는 특산물이자 지역 농업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이 약용작물 산업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이학수(오른쪽) 정읍시장과 건국유업&햄 박경철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 고창군, 교촌리에 청년주택 40가구 공급

청년특화주택 공모 선정 국비 32억 확보...45.54㎡ 투룸형

고창군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올해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국비 32억원을 확보했다. 고창군은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고창읍 교촌리 일원이다. 이곳은 행정기관 및 생활편의시설과 인접해 있고 차량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 청년층이 거주하기에 좋다. 공급주택의 전용면적 45.54㎡의 투룸형이다.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에 공용 회의실, 휴게 라운지, 옥상정원 등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고창군이 직접 시행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청년특화주택 공급은



청년특화주택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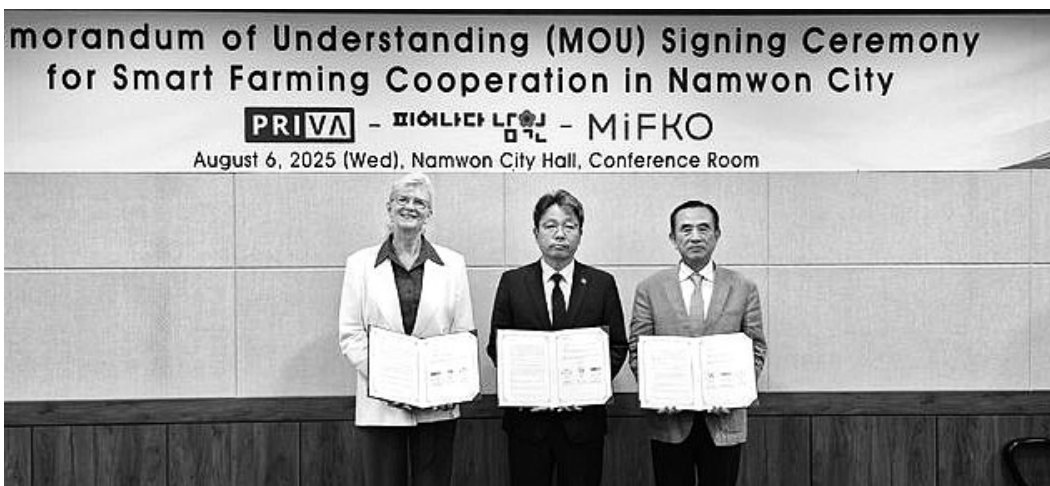
고창에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고창, 청년이 자립하고 꿈꿀 수 있는 고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세계적 기업 ‘프리바’ 손잡고 스마트팜 선도도시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글로벌 1위 기업과 업무 협약

남원시가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및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국내 최초 ‘소각장 폐열 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네덜란드 ‘프리바(Priva)’와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지난 6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이성호 부시장과 프리바의 매니 프린스 회장, 프리바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인 ‘미푸코’의 나영욱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이 체결됐다. 이어 시가 추진 중인 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형, 날씨, 수자원, 일조량, 풍향 및 기반시설에 대해 프리바가 축적한 기술력을 이용한 분석사항을 지원하는 협력 논의가 진행됐다. 네덜란드 시설원에 복합환경제어 전문기업인 프리바는 온실 솔루션 분야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 등 100여개국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15개국에 지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대산면 일대 60ha 규모의 농생명 산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8년까지 1268억원을 투입 ▲스마트팜 임대경영(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취·창업) ▲가공·유통(스마트팜 혁신단지) ▲실증·기업 유치(스마트원예단지) ▲폐열 활용·마래농업 복합문화공간(친환경 에너지타운) ▲주거(농촌보급자리) 등을 집적화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남원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점검·단속

다음달까지 평상·가설건축물 등...적발시 철거·변상금 부과

남원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용 행위를 점검·단속 중이다. 오는 9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단속은 여름철 하천 이용이 급증함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시는 특히 지리산 부근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설치된 평상, 가설건

축물, 그늘막 등으로 ‘하천법’에 위반되는 불법 점용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즉시 시정하거나 일정 기간 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은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여름철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시, 저탄소 영농활동 농업인에 지원금

지속 가능 농업 실현 1ha당 46만원...29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하반기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정읍시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탄소 발생 감소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1ha당 46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벼 수확 후 그루터기(또는 벼짚) 잔사를 토양에 혼입하는 ‘가을갈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당해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20ha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인 농업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소재지 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저탄소 농업 활동은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어르신 전동스쿠터에 ‘넘어짐 감지’ 센서

고창군, 사물인터넷 단말기 지원...사고시 자동 신고로 신속 구호

고창군이 노인층의 전동스쿠터 사고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위해 전동스쿠터에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단말기를 지원·부착할 예정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노인층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자 ‘LoRa IoT를 활용한 이동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서비스 구축’ 사업이 추진한다. 사업을 통해 노인층 전동스쿠터에 지원·부착되

는 단말기는 자이로 센서와 중력가속도 센서 등을 통해 넘어짐 등의 사고를 정확히 감지한다. 여기에 LoRa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고가 일어날 경우 고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 자동 신고되며 신속한 구호 조치로 이용자의 안전을 돕는다.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이동경로 분석

과 위험지역 파악 등 빅데이터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확보되는 데이터를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사고 다발지역을 파악해 도로 환경 개선 등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IoT 기반 전동보장구 안전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